

#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 :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 Externalizing Problems in Single Parent Families

### : The Mediating Role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주리\*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Lee, Ju-Lie

---

#### <Abstract>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on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middle school students' externalizing problems in single parent families. Participants were 174(2003-2004 panel 1 data of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elf-control and self-esteem did not mediate the associations between time 1 parenting behaviors and time 2 middle school students' externalizing problems, after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time 1 middle school students' externalizing problems.

---

▲주요어(Key Words) : 한부모 가정(single parent family), 부모양육태도(parenting),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자아통제(self-control), 자아존중감(self-esteem)

#### I. 서론

청소년들은 부모의 별거나 이혼,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본래 역할인 전통적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역할 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의 역할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는 결국 부모로서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가구 형태에 따라

자녀들의 적응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 음주, 무단결석 등 이탈행동 혹은 정서적인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오승환, 2001; Jablonska & Lindberg, 2007). 최경일(2007)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이처럼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는 이유에 대하여 이들이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은 고위험 요소를 가진 집단으로서 성장과정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표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적응을 살펴

---

\* 주저자 · 교신저자 : 이주리 (E-mail : julie@cau.ac.kr)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표집의 어려움은 또 한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방법론적인 한계에 관한 것이다.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의 검증은 종속변인보다 예측변인이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이며, 횡단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공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지 못한다. 때문에, 횡단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결과(종속변인)에 대한 원인(예측변인)의 시간적 선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단모델이 요구된다. 특히, 측정 시기 간 시간간격은 1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두 시기 간 간격이 1년 이하이면 예측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반면 1년 이상으로 간격이 멀어지면 그 사이 시간 동안 예측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순수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Grych, Harold, & Mile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인과 종속변인 간 1년의 간격을 설정하여 종단모델을 통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개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과정의 청소년들에게 부모양육태도는 그들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변인이다. 이는 양부모 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특정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자녀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람직한부모양육태도에 대해서는 각 나라와 문화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자녀에 대한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은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강희경, 2002; 이주리, 2008a; 이주리, 2008b; 정익중, 2007; Bamaca et al., 2005; Brody et al., 2002; Rothbaum & Weisz, 1994; Menon et al., 2007; Simons et al.,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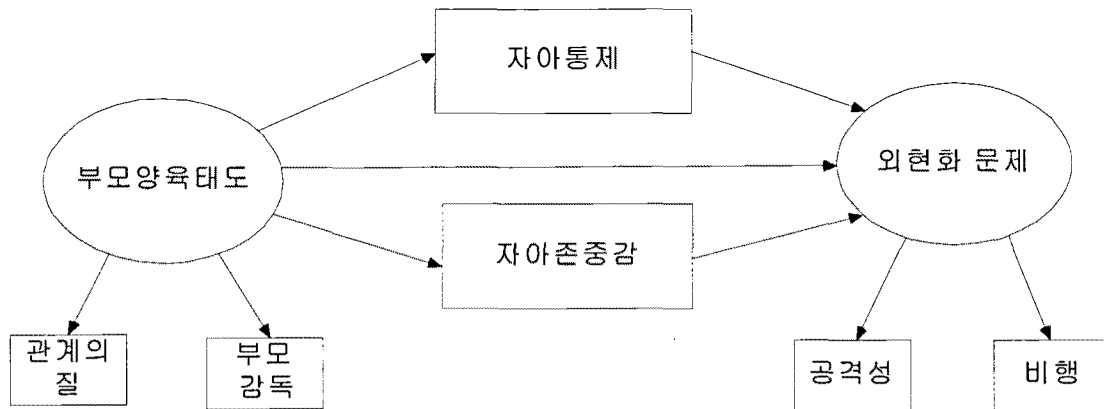
이러한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하게 관련된다(Milevsky et al., 2007).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었다(Donnellan et al., 2005). Finkenauer 등(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행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수록 청소년들의 행동, 정서적 문제 수준은 낮아졌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쳐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는 매개모형으로서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이주리, 2008a; 이주리, 2008b; Brody et al., 2002; Brody et al., 2002; Chapple et al., 2005; Donnellan et al., 2005).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자아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Brody 등(2002)는 한부모 가정의 7~15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 자녀 간 관계의 질이 높고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아조절 수준이 높아져 공격성, 비행, 우울 등의 부적응 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Brody 등(2002)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모든 청소년들이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탄력성'으로서 이를 설명하였는데, 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절하다면 청소년들은 건강한 적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Brody 등(2002)의 비슷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11~13세 청소년들은 부모의 관여적이고 주의 깊은 보살핌을 받을수록 자아통제 수준이 높아져 공격성, 비행, 불안 등의 부적응 수준은 낮아졌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자아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외현화 문제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Chapple 등(2005)의 연구와 Finkenauer 등(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Cheung과 Cheung(2008)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아통제는 청소년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양 문화권인 홍콩의 14~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인데, 자아통제는 가출, 무단 결석, 음주, 흡연 등 일반적인 비행(general delinquency),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기, 도둑질 등 소유권에 대한 비행(property delinquency), 싸움, 협박 등 폭력적 비행(violent delinquency) 등 여러 종류의 청소년 비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 애착, 학교 애착, 강압적인 부모양육태도, 스트레스 사건,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보다 자아통제가 모든 비행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제는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 중 하나임이 시사되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미국과 뉴질랜드의 11-1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Donnellan 등(2005)의 연구에서 지지적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 수준을 낮추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매개 경로는 유의하여 부모의 수용과 감독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변인



<그림 1> 이론적 모델

으로 작용함으로써 외현화 문제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주리, 2008b).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한부모 가정 내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이들의 적응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고 지지적이어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이 높고, 더불어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함께 이룰 때 청소년의 적응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시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이주리, 2008b) 모형을 따르기로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전의 연구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중2패널에서 한부모 가정 174가구(남학생 80명, 여학생 94명)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2003년부터 중학교 2학년 3449명(남 1725명, 여 1724명)을 대상으로 매 1년마다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 종단설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2003년), 중학교 3학년(2004년)의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종단자료는 원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순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인과관계의 검증에 특히 적절하다. 데이터의 표집방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이었다.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가입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08).

연구대상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평균 136만원 정도였으며 (SD=102.76), 어머니 교육수준과 아버지 교육수준은 모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자였다(아버지 교육수준 : 중졸 이하 28.2%, 고졸 50.3%, 전문대 및 대졸 20.2%, 대학원 졸업 이상 1.4%, 어머니 교육수준 : 중졸 이하 35.1%, 고졸 52.6%, 전문대 및 대졸 10.3%, 대학원 졸업 이상 1.9%). 아버지 직업은 장치 및 기계 조작 18.1%, 사무직과 단순 노무직이 각각 14.7%, 무직 11.2% 등이었고, 어머니 직업은 무직 34.0%, 서비스직 26.8%, 판매직 16.3% 였다.

2) 척도

(1) 부모양육태도 (2003년)

부모양육태도는 ‘관계의 질’ 과 ‘부모감독’ 의 2개 하위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874, 부모 감독이 .858였다.

① 관계의 질 : 6문항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3.16, 표준편차는 0.85 였다.

② 부모감독 : 4문항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lt;표 1&gt;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M	SD
관계의 질(2003)	3.16	0.85
부모 감독(2003)	3.02	0.85
자아통제(2003)	2.67	0.93
자아통제(2004)	2.77	0.14
자아존중감(2003)	3.02	0.67
자아존중감(2004)	3.16	0.70
공격성(2003)	2.87	0.63
공격성(2004)	2.79	0.66
비행(2003)	1.11	1.07
비행(2004)	1.07	0.13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이다. 문항들의 평균은 3.02, 표준편차는 0.85 였다.

#### (2) 자아통제 (2003년, 2004년)

자아통제의 측정 문항은 총 6문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

각 문항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는 2003년 .697, 2004년 .756 이었다. 2003년 문항들의 평균은 2.67, 표준편차는 0.93 이었고, 2004년 문항들의 평균은 2.77, 표준편차는 0.14 이었다.

#### (3) 자아존중감 (2003년, 2004년)

자아존중감의 측정 문항은 총 6문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역).’

각 문항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는 2003년 .671, 2004년 .741 이었다. 2003년 문항들의 평균은 3.02, 표준편차는 0.67 이었고, 2004년 문항들의 평균은 3.16, 표준편차는 0.70 이었다.

#### (4) 외현화 문제 (2003년, 2004년)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과 ‘비행’ 의 2개 하위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공격성 2003년 .768, 2004년 .766, 비행 2003년 .743, 2004년 .780 이었다.

##### ①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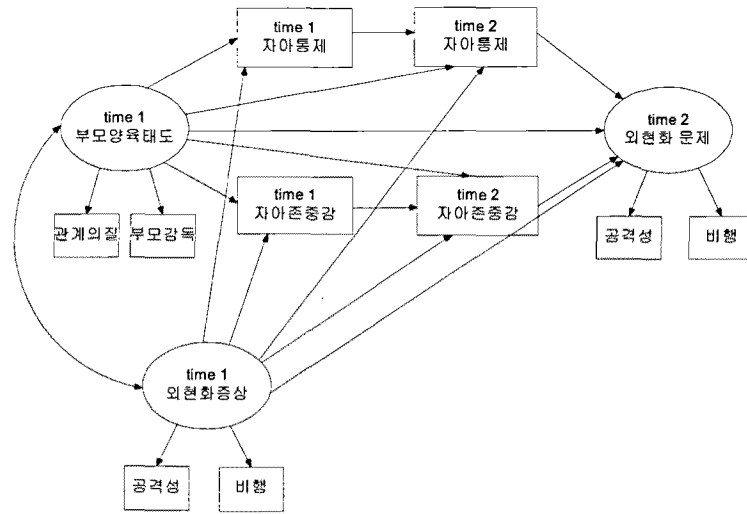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2003년 문항들의 평균은 2.87, 표준편차는 0.63 이었고, 2004년 문항들의 평균은 2.79, 표준편차는 0.66 이었다.

##### ②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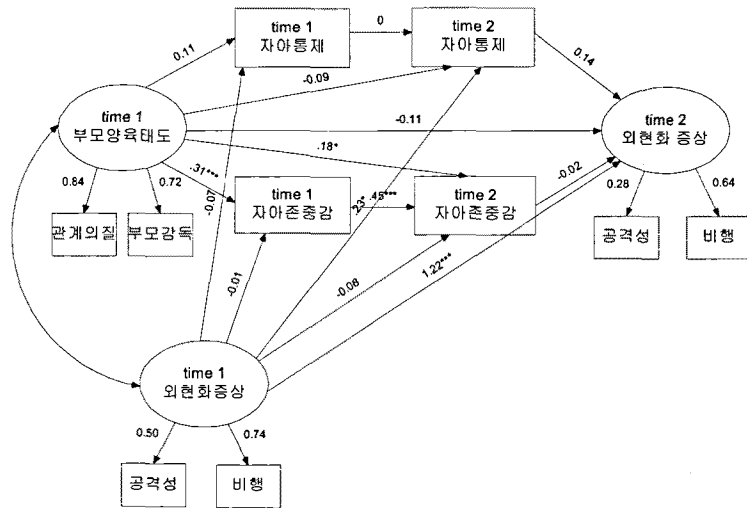
지난 1년 간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듣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헐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를 한 경험에 대해 ‘전혀 없다’ 와 ‘있다’ 로 측정되었다. 2003년 문항들의 평균은 1.11, 표준편차는 0.71 이었고, 2004년 문항들의 평균은 1.07, 표준편차는 0.13 이었다.

#### 3) 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용이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의 검증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종단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time 1의 부모양육태도를



<그림 2> 분석 모델



Chi-square= 49.8, df= 24, IFI=.916, CFI= .907, RMSEA= .018, N=174  
 \*p <.05, \*\*\*p<.001

<그림 3> 부모양육태도, 자아통제, 자아존중감, 외현화 증상 간 관계

예측변인으로, time 1과 time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time 2의 외현화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때, time 1의 외현화 문제를 또 다른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전의 심리적 적응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전의 외현화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보다 순수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me 1에서 각 변인들로 가는 경로들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매개변인인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서도 이전 시기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하기 위해 time 1의 부모양육태도에서 time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모델

은 Grych 등(2003), 이주리(2008a) 및 이주리(2008b)의 연구 모델에 근거한다.

III. 연구 결과

<그림 2>의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은 우수한 수준에서 수용되었다(chi-square=49.8, df=24, IFI=.916, CFI=.907, RMSEA=.018). 분석 결과는 <그림 3>을 통해 제시하였다. time 1과 time 2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의 안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time 1에서 time 2로 가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의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이전의 외현화 문

제인 time 1의 외현화 문제가 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time 1의 외현화 문제에서 time 1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 time 2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제시된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 계수이며 모델 추정법은 ML을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자아통제는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양육태도가 time 1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eta=.31, p<.001$ ), time 1의 자아존중감이 time 2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45, p<.001$ ), time 2의 자아존중감이 time 2의 외현화 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전의 연구(이주리, 2008b)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를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를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각각 모두 매개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 동일한 연령의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제는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했으며, 자아존중감은 부모양육태도의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아동들 사이에서는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다른 결과이다. 부모 변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자아통제의 매개경로를 살펴본 Chapple 등(2005)의 연구나, Finkenauer 등(2005),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경로를 살펴본 Donnellan 등(2005)의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은 모두 자신과 관련되는 자아변인이다. 이러한 변인들이 양부모 가정 아동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적응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한부모 가정 아동들 사이에서는 보다 다른 변인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부모 가정 아동들은 양부모 가정 아동들에 비해 빈곤 등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더 큰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아 관련 변인보다 환경 관련 변인이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개인은 환경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자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차례대로 충족되어서야 비로소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아동들은 많은 경우 빈곤과 관련하여 의식주와 같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 이전에 '빈곤' 과 같은 선행조건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빈곤이 아동의 적응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많이 검증되어 오고 있다(Ackerman et al., 2001; Ford et al., 2007; Scaramella et al., 2008; Wadsworth et al., 2008).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비행이나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Ackerman et al., 2001; Wadsworth et al., 2008), 빈곤이 부모의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야기함으로써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고하기도 한다(Scaramella et al., 200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빈곤과 같은 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더구나,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서구 사회의 Brody 등(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조절 수준이 높아져 부적응(공격성, 비행, 우울로 측정함) 정도도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인지, 혹은 측정 도구의 차이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해봄으로써 명료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이혼 등의 문제로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 아동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가치 있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인 한부모 가정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많은 경우가 횡단 분석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단 분석 연구였다. 이는 인과관계의 분석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횡단연구에 비해 원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선행의 조건이 충족되어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의 검증은 시행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강희경(2002). 부모의 초기 권위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

- 존중감 및 완벽성. *청소년학연구*, 9(3), 37-55.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가족 기능과 자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이주리(2008a).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이주리(2008b).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인간 발달연구*, 15(2), 89-104.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89-121.
- 최경일(2007).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4), 145-16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ckerman, B. P., D'Eramo, K. S., Umylny, L., Schultz, D. & Izard, C. E.(2001). Family structure and the externalizing behavior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288-300.
- Bamaca, M. Y., Umana-Taylor, A. J., Shin, N., & Alvaro, E. C.(2005). Latino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self-Esteem: Examining the role of neighborhood risk. *Family Relations*, 54(5), 621-632.
-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 (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 Chapple, C. L., Hope, T. L., & Whiteford, S. W.(2005). The direct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bonds, parental drug use,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14(3), 17-38.
- Cheung, N. W. T. & Cheung, Y. W.(2008). Self-control, social facto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 412-430.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Ford, T., Collishaw, S., Meltzer, H., Goodman, R.(2007). A prospective study of childhood psychopathology: independent predictors of change over three yea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953-961.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1193.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ges, E. V. E., & Perry, D. G.(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6), 1627-1639.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16, 39-47.
- Jablonska, B. & Lindberg, L.(2007). Risk behaviours, victimisation and ment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42, 656-663.
- Rothb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 Scaramella, L. V., Neppl, T. K., Qntai, L. L. & Conger, R. D.(2008). Consequence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cross three generations :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25-733.
- Simons, 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ck, L. B.(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45-171.

Wadsworth, M. E., Raviv, T., Reinhard, C., Wolff, B.,  
Santiago, C. D., & Einhorn, L.(2008). An indirect  
effects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  
and child functioning : The role of children's pov-  
erty-related stre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3,  
156-185.

접수 일 : 2009년 12월 29일

심사 일 : 2010년 0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01일